

美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2025. 07.

목 차

◆ 요약	3
Ⅰ.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재편	6
Ⅱ. 美 대규모 감세법 통과에 따른 업계 영향 ..	10
① 전기차 업계 영향	10
② 배터리 업계 영향	13
Ⅲ. 정책과제	18
① 50조원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 조성	18
②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 직접환급 도입 ..	19
③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20
④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 연장 및 재원 확보 방식 ..	21
※ 참고문헌	22

◆ 요약

-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7.4. 발효)내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30D) 조기 종료 및 배터리 생산세액공제(45X) 공급망 강화 요건 포함
 -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부터 예고되어 온 것으로, 대규모 감세법을 통해 현실화
 - 배터리 생산세액공제(45X)내 FEOC 공급망 요건 삽입 가능성이 지속 제기 되어왔고, 대규모 감세법에 新 공급망 요건 삽입이 반영돼 제도화 확정
-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의 핵심 동인이었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기간을 ‘32년 말에서 ’25년 9월 30일까지로 7년 이상 단축
 - 미국 현지 완성차 제조사(현대차그룹 포함)의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약 37%(약 31만 대) 감소, 한국 자동차기업은 최대 4만 5천대(매출액 19억 5,508만 달러) 판매 감소 추정
 -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북미 내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했던 배터리 제조업체에 연쇄적 영향 예측
-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수혜기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 新 공급망 요건 추가
 - 미국 내 첨단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배터리 생산세액공제는 수혜 기간 유지
 -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내 新 공급망 요건이 도입되어 45X 수혜가 기존보다 까다로워졌으나, 30D의 FEOC 공급망요건보다는 한층 완화된 구조
-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생산 기반 유지와 투자 지속을 위해 재정지원 필요
 -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 조성] 산업은행법 개정과 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은행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집행 시차 최소화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직접 환급] 통합 투자 세액공제에 더해 연구·인력개발비에도 한시적 직접 환급제 도입 검토 필요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및 직접 환급]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한시적 도입 검토 필요
 - [공급망안정화기금] 기금 조성기간 연장(現 5년) 및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지원·재원확보 검토 필요

◆ Executive Summary

-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which took effect on 4 July 2025, terminates the electric-vehicle tax credit (30D) earlier than scheduled and adopts new FEOC provisions to the advanced-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45X).
 - Repeal of the EV tax credit—a long-standing policy priority of the Trump administration—has now been enacted through OBBBA.
 - FEOC requirement—previously confined to the 30D credit—had long been expected to be applied to 45X, and the new Act confirms that expansion.
- The EV credit’s new sunset date shortens the incentive period by more than seven years, from 31 December 2032 to 30 September 2025.
 - U.S.-based OEMs (including Hyundai Motor Group) could see annual EV sales fall by an estimated 37 percent ($\approx 310,000$ units), with Korean automakers losing about 45,828 units ($\approx \$1.9$ billion in revenue).
 - Eliminating the credit is also expected to cascade upstream, affecting battery makers and critical-mineral suppliers that had scaled their U.S. operations to capture the incentive.
- The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45X) maintains its benefit period while introducing new FEOC rules.
 - The 45X credit, designed to promote advanced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will maintain its existing benefit period.
 - While new FEOC rules have been introduced under the 45X credit, making it more stringent than before, these requirements are less restrictive compared to the FEOC rules under Section 30D.
- A comprehensive fiscal support needed to sustain production bases and continued investment by EV and battery companies.
 -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Fund] Promptly establish the Advanced Strategic Industry Fund by expediting the amendment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and the approval of government guarantees, while setting up a dedicated department within KDB to minimize execution delays.

○ **[Tax Credits o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Facility Investment and R&D/HR Development Expenses]**

Consider introducing a temporary Direct Pay and Transferability system for R&D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 investment tax credit.

○ **[Domestic Production Incentive Tax Credit for Battery with Direct Pay and Transferability]**

Temporarily introduce tax incentives to promote domestic production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applying Direct Pay and Transferability to enhance flexibility.

○ **[Supply Chain Resilience Fund]** Extend the Fund's term beyond the current five-year limit and utilize Export-Import Bank contributions to expand financing for overseas mineral projects.

I.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재편

□ 『인플레이션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시행 이후 2년간(23~'24년) 美 신규 청정에너지 생산 투자 총 2,850억 달러, 전기(21~'22년) 대비 58% 증가¹⁾

○ 친환경차, 배터리,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는 IRA 시행 이후 2년간 총 802억 달러로, 지난 '18년~'22년간 이뤄진 투자(280억)의 약 2.8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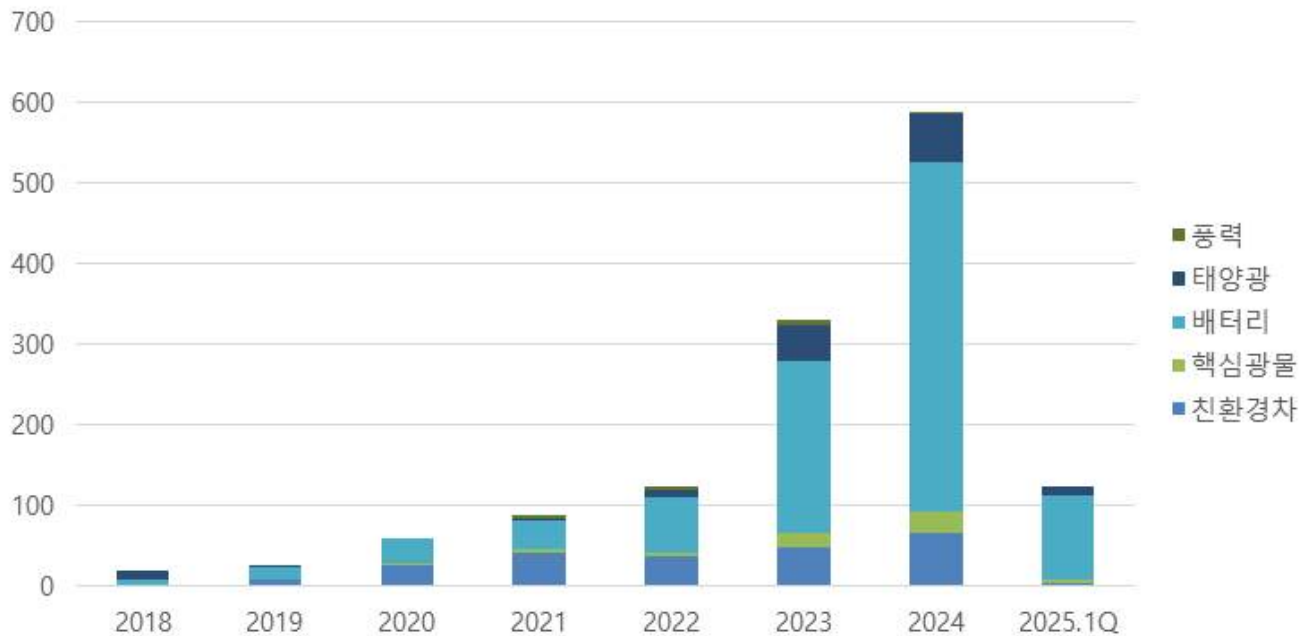
－ (친환경차) '23년 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9% 증가, '24년에는 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7% 증가하며, 2년간 총 114억 달러 투자

－ (배터리) '23년 2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1배 증가, '24년에는 431억 달러로 약 2배 추가 성장하며, 2년간 총 644억 달러 투자

－ (핵심광물) '23년 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 '24년에는 28억 달러로 75% 증가하며, 2년간 총 44억 달러 규모 투자

<그림1-1> 2018~2025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 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Q	총계
친환경차	0	8	25	42	38	49	65	3	230
핵심광물	0	0	4	4	4	16	28	6	62
배터리	8	15	29	35	68	213	431	104	903
태양광	12	3	0	3	9	46	60	10	143
풍력	0	0	0	3	4	5	1	0	13

※자료: Rhodium Group-MIT/CEEPR Clean Investment Monitor 일부 발췌하여 작성

1) <https://www.cleaninvestmentmonitor.org/> (최종 접속일: 2025.06.18.)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는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Unleashing American Energy, EO 14154)’에 서명(1.20)²⁾
- 동 행정명령은 △전기차 의무화·보조금 정책 폐기 △기후 관련 행정명령·기관 폐지 △그린 뉴딜 기반 지급 즉시 중단 △핵심광물 공급망 재구축 등 포함

<표1-1>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內 전기차·배터리 관련 조항

구분	주요내용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2조)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보조금 삭감
	주(州)별 배출가스 규제 종료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 집행 금지
친환경 행정명령 및 정책 폐지 (4조)	IRA 및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사무소 폐지
	폐지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당됐던 자금 처분
그린뉴딜 폐기 (7조)	IRA ^{주1)} 및 IJA ^{주2)} 에 기반한 자금 지급 중단
핵심광물 주도권 강화 (9조)	미국 내 핵심광물 채굴·가공 규제 완화 추진
	해외 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상·안보 평가 강화
	강제노동 우려 광물에 대한 수입통제 조치

주1)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22.8.16 발효

주2)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JA) '21.11.15 발효

※자료: EO 14154 참고하여 작성

□ 트럼프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7.4, 발효)내 反친환경 정책 기조 지속

- OBBBA는 △개인·법인 감세 및 세금 혜택 연장 △국방 및 국경 안보 예산 증액 △재정 지출 삭감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기조 반영
- －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법안이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발의(5.12)한 후, 양당 간 1표 차(공화당 215표 찬성- 민주당 214표 반대)로 하원 통과³⁾
- － 상원 재무위원회 OBBBA 상원 초안⁴⁾발표(6.16) 후, 찬성 50표, 반대 50표에 부통령 J.D.밴스가 찬성 캐스팅보트 행사하여 1표 차로 상원 통과(7.1)⁵⁾

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 (최종 접속일 : 2025.06.18.)

3)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text> (최종 접속일 : 2025.06.18.)

4)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finance_committee_legislative_text_title_vii.pdf (최종 접속일: 2025.06.18.)

- 7월 2일 하원 재가결^{주3)} 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여 법안 발효⁶⁾
- * 주3) 찬성 218, 반대 214 민주당 전원 반대, 공화당 2명 반대

<표1-2> 대규모 감세법(OBBBA) 주요 내용

감세 및 세금 혜택 연장 ⁷⁾	-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주4)} 감세 조치 영구 연장 • 개인소득세 관련: 최고세율 39.6% → 37% 인하, 표준 공제 인상(개인: \$6,350 → \$12,000, 부부: \$12,700 → \$24,000) • 법인세 관련: 법인 세율 35% → 21% 영구 인하 - 새로운 세금 면제 항목 추가 : 팁 및 초과근무 수당 소득세 면제
국방 및 국경 안보 예산 증액	- 국방비 1,500억 달러 증액 - 국경 및 이민 단속 1,000억 달러 증액
재정 지출 삭감	- 약 1.7조 달러 규모의 의무지출 삭감 추진 • 메디케이드(Medicaid) 삭감 : 10년간 9,300억 달러 절감 • 저소득층 식품지원(SNAP) 삭감 : 10년간 2,879억 달러 절감 •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단계적 폐지 : 4,880억 달러 지출 절감

주4)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ax Cuts and Jobs Act, TCJA)(’18.1.1 발효)

※자료: OBBBA 참고하여 저자 작성

□ OBBBA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분^{주5)}의 일부를 IRA의 청정에너지 지원 제도에 대한 지출 삭감 및 중단으로 상쇄

* 주5) 향후 10년간(’25 ~’34) 약 4조 달러 세수 감소⁸⁾, 재정적자 약 1.9~3.2조 달러 예상⁹⁾

○ 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지원 삭감 및 중단 시, 향후 10년간(’25~’34년) 약 4,88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지출 감축이 예상¹⁰⁾

5)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5/07/senate-passes-big-beautiful-bill-00434918> (최종 접속일: 2025.07.06.)
6)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trump-sign-major-tax-cut-spending-bill-into-law-friday-2025-07-04/> (최종 접속일: 2025.07.06.)
7) <https://www.crfb.org/blogs/breaking-down-one-big-beautiful-bill/> (최종 접속일: 2025.06.18.)
8)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big-beautiful-bill-house-gop-tax-plan/> (최종 접속일: 2025.06.18.)
9) <https://www.crfb.org/blogs/30-year-cost-obbbba> (최종 접속일: 2025.07.18.)
10) <https://taxfoundation.org/blog/one-big-beautiful-bill-pros-cons/> (최종 접속일: 2025.06.18.)

<표1-3> OBBBA 주요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 관련 변경 내용

세액공제		IRA 지원 내용	OBBBA 변경 내용
대상	규모		
청정전력 생산 (45Y)	0.3cents x kWh 또는 1.5cents x kWh	'32년부터 단계적 축소	풍력 및 태양광 설비 '27년 말까지 적용
		공급망 요건 無	공급망 요건 추가
청정전력 투자 (48E)	투자금액의 6% 또는 30%	'32년부터 단계적 축소	풍력 및 태양광 설비 '27년 말까지 적용
			공급망 요건 추가
무탄소 원자력 활용 전력 생산 (45U)	0.3cents X kWh	'32년 말까지 적용	-
		공급망 요건 無	공급망 요건 추가
청정수소 생산 (45V)	kg X 구간별 적용금액	'32년 말까지 적용	'27년 말까지 적용
신규 친환경차 (30D) ^{주6)}	핵심광물 요건 및 배터리부품 요건 동시 충족 시 총 \$7,500	'32년 말까지 적용	'25.9.30까지 적용
중고 친환경차 (25E)	중고차 한 대당 \$4,000 또는 판매가격의 30% 중 적은 금액	'32년 말까지 적용	'25.9.30까지 적용
상용 친환경차 (45W)	상용차 한 대당 \$4,000 또는 판매가격의 30% 중 적은 금액	'32년 말까지 적용	'25.9.30까지 적용
첨단 제조 (45X) ^{주7)}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셀(\$35/kWh) 및 모듈(\$10/kWh)	'32년 말까지 적용	'32년 말까지 적용
		공급망 요건 無	공급망 요건 추가

주6) (핵심광물 요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중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최소 50%(비율 매년 증가)가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공급 시 \$3,500 세액공제

(배터리 부품 요건)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최소 60%(비율 매년 증가)가 북미에서 생산 시 \$3,500 세액공제

주7) 미국 내 배터리 부품 생산 및 판매 시, 배터리 셀에 \$35/kWh, 배터리 모듈 \$10/kWh(셀 사용) 또는 \$45/kWh(셀 미사용) 세액공제

※자료: IRA, OBBBA

II. 美 대규모 감세법 통과에 따른 전기차·배터리 업계 영향

① 전기차 업계 영향

□ (전기차 보조금 조기 종료)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의 핵심 동인이었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기간을 '32년 말에서 '25년 9월 30일까지로 약 7년 이상 단축

○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주8)}, 美 재정 지출 향후 10년간('25~'34) 1,910억 달러 감소 예상¹¹⁾

* 주8) IRA 신규전기차(30D), 중고전기차(25E), 상용전기차(45W) 세액공제 일괄 즉시 종료 가정

□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시^{주9)}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 판매량은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¹²⁾

* 주9) IRA 신규전기차(30D), 중고전기차(25E), 상용전기차(45W) 세액공제 일괄 즉시 종료 가정

○ 전기차 세액공제 전면 폐지 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약 27%(31만 7,000대),¹³⁾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약 37%(31만대) 감소 예측

○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약 3만 3천대 ~ 4만 5천대(매출액 14억 2,668만 달러 ~ 19억 5,508만 달러) 감소 추정^{주10)}

< 표2-1>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판매 대수 및 매출 감소 추정치

	판매율 감소	판매 감소 대수	매출 감소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7%	33,442	14억 2,668만
미국 내 생산업자의 전기차 판매	37%	45,828	19억 5,508만

※자료: NBER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기차 판매율 감소 추정치 기반하여 계산

* 주10) 2024년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판매 대수 및 매출

회사	모델	'24년 시장 점유율 ¹⁴⁾	'24년 판매 대수	기본판매가(\$) ¹⁵⁾¹⁶⁾¹⁷⁾	총 매출(\$) (판매 대수 X 판매가)
현대	IONIQ 5	3.4%	44,400	42,600	18억 9,100만
	IONIQ 6	1%	12,264	37,850	4억 6,400만
	Kona	0.4%	5,133	32,975	1억 6,900만

11) <https://www.crfb.org/blogs/breaking-down-one-big-beautiful-bill/> (최종 접속일: 2025.06.18)

12) Hunt Allocott, Reignier Kane, Maximilian S. Maydanchik, Joseph S. Shapiro, Felix Tintelnot. (2024) The Effects of "Buy American": Electric Vehicles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33032.

13) <https://www.kbb.com/car-news/report-ending-tax-credit-could-cut-ev-sales-27/> (최종 접속일: 2025.06.24.)

기아	EV9	1.7%	22,017	54,900	12억 900만
	EV6	1.7%	21,715	42,900	9억 3,200만
	Niro	0.9%	12,093	26,900	3억 2,600만
제네시스	GV70	0.2%	2,976	47,985	1억 4,300만
	GV60	0.2%	2,866	52,350	1억 5,000만
총계		9.6%	123,861		52억 8,400만

※자료: 현대자동차그룹 2024년 미국 현지 판매 실적 자료 참고하여 작성

□ (미국내 투자 회수 리스크) 현대차그룹은 美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조기 가동과 추가 투자를 발표했으나, 보조금 축소 움직임에 전동화 계획 조정

- 현대자동차그룹은 IRA의 미국 내 생산 및 배터리 원산지 요건 충족을 위해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인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조기 가동('24년 10월)
 -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美에너지부, '25.1월¹⁸⁾)에 현대차 전기차 5종(IONIQ 5, IONIQ 9, EV 6, EV 9, GV70) 포함 이후, HMGMA의 생산능력을 50만대로 확대(20만대 증산) 하고 생산설비 현대화 등에 '28년까지 80억 달러 이상 추가 투자 발표('25.3월)
- OBBBA 등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에 대비하여 현대차를 포함한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전동화 계획을 조정
 - (현대차)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전기차 판매 목표를 일부 수정하고 하이브리드차 생산 확대를 통해 병행 생산 전략 추진¹⁹⁾
 - (포드) '24년 8월, 새로운 전기 픽업(F150) 출시를 '27년 하반기로 연기하고, 계획되었던 3열 전기 SUV 개발 취소²⁰⁾
 - (GM) 전기차 생산계획을 보다 보수적 조정하고, '25년 4월 LG에너지솔루션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합작투자 철수²¹⁾

14) <https://www.coxautoinc.com/wp-content/uploads/2025/01/Q4-2024-Kelley-Blue-Book-EV-Sales-Report.pdf> (최종 접속일: 2025.06.30.)

15) <https://www.hyundaiusa.com/us/en/vehicles> (최종 접속일: 2025.06.30.), 최저가격(엔트리) 기준

16) <https://www.kia.com/us/en> (최종 접속일: 2025.06.30.), 최저가격(엔트리) 기준

17) <https://www.genesis.com/us/en/genesis-electric> (최종 접속일: 2025.06.30.), 최저가격(엔트리) 기준

18) www.fueleconomy.gov (최종 접속일: 2025.06.18.)

19)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hyundai-motor-plans-add-hybrids-us-plant-within-current-investment-exec-2024-05-08/> (최종 접속일 2025.6.25.)

20)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ford-plans-new-low-cost-ev-pickup-truck-launching-2027-2024-08-21/?utm_source=chatgpt.com (최종 접속일: 2025.06.25.)

21)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9004500071> (최종 접속일: 2025.06.25.)

□ **(공급망 연쇄 영향)** 전기차 보조금 종료로 배터리 제조업체 및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에 연쇄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 전기차 세액공제는 단순한 차량 구매 지원책이 아닌, 핵심광물 요건^{주11)}과 배터리 부품 요건^{주12)}, 공급망 요건^{주13)}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

* 주11) 핵심광물 비율 요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의 FTA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

** 비율: (~'23) 40% → ('24) 50% → ('25) 60% → ('26) 70% → ('27~) 80%

* 주12) 배터리 부품 비율 요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지역 내 제조

** 비율: (~'23) 50%→('24~'25) 60%→('26) 70%→('27) 80%→('28) 90%→('29~) 100%

* 주13)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 또는 특정 핵심 광물 중 하나라도 FEOC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제외(단, '26년 말까지 일부 배터리 재료(전해질 염, 전극 바인더, 전해질 첨가제 속 광물, 흑연 등)는 FEOC 준수 의무에서 제외)

– 미국 내 완성차 제조사(현대자동차그룹 포함)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배터리 3사와의 합작 형태로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

<표2-2> 배터리 3사 미국 생산기지 현황

기업	지역(주)	향후 생산규모 (GWh)	생산 가동 계획	합작사
LG 에너지 솔루션	오하이오 (워렌)	40	'22년~	GM
	테네시 (스프링 힐)	50	'24년~	
	미시간 (랜싱)	50	'25년~	단독 ('25.4 GM 지분 인수)
	미시간 (홀랜드)	40	'12년~	단독
	오하이오주 (파에트 카운티)	40	'25년~	혼다
	조지아 (서배너)	30	'25년~	현대
	애리조나 (퀸크릭)	53	'26년~	단독
삼성SDI	인디애나	33	'25년~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34	'27년~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30	'27년~	GM
SK온	조지아	22	'22년~	단독
	조지아	35	'26년~	현대
	테네시	43	'26년~	포드
	켄터키	43	'25년~	
	켄터키	43	-	

※자료 : 각사 발표자료 취합

② 배터리 업계 영향

- **(생산보조금 유지)**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45X)^{주14)} 수혜 기간 유지, 핵심광물 제조^{주15)}에 대해서는 단계적 축소 적용하되 지원 1년 연장²²⁾

* 주14) 45X는 배터리 셀 생산 시 kWh당 35\$, 모듈 생산 시 kWh당 10\$를 지급하며, 일몰제 방식으로 단계적 축소('30년 75% → '31년 50% → '32년 25% → '33년 0%)

* 주15)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료, 보관료 등)의 10% 지급
(기존) 2032년까지 생산비용 10% 지급

(변경) 단계적 축소 적용 ('31년 (생산비용 10%의) 75% → '32년 50% → '33년 25% → '34년 0%)

- 핵심광물 제조 세액공제 1년 연장과 단계적 감액은 지원 공백 충격을 완화하고 핵심광물 제조업계의 원가 혁신·공정 투자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해석

- **(공급망 강화 요건 도입)** 기존 IRA 배터리 생산세액공제(45X)에는 없던 공급망 요건 신설됐으나, 기존 FEOC 공급망 요건보다 다소 완화된 구조

- IRA는 특정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 보유(25%이상)시 FEOC로 간주, OBBBA는 한 단계 더 강화된 '금지 외국 법인(Prohibited Foreign Entity, PFE)^{주16)}' 개념 도입

* 주16) 금지 외국 기관은 특정 외국기관(Specified Foreign Entity, SFE), 외국 영향기관(Foreign Influenced Entity, FIE)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OBBBA는 PFE의 개입과 PFE에 대한 실질적 지원 또한 보조금 수혜 탈락 요건으로 확장

- (특정 외국기관, SFE) 법률상 지정하는 제재 대상 외국 기업과 해외 우려했던 정부가 50% 초과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외국 통제 기업
- (외국영향기관, FIE) SFE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또는 채무, 직간접적 인사권을 보유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는 기업
- (지분·채무 기준) IRA의 FEOC 규정은 중국 정부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만 규제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우회 가능성이 있었으나, OBBBA의 FIE는 SFE가 25~40%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규제
- (실질 통제권 기준) 배터리 부품의 생산에 있어 PFE가 라이선스·구매계약으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배터리사는 PFE와의 체결한 적격부품 생산 관련 장기계약·라이선스가 실질 통제권(생산량 결정, 생산 시기 결정 등)을 부여하는 구조인지 검증 필요

22) <https://www.csis.org/analysis/impacts-one-big-beautiful-act-mining-sector> (최종 접속일: 2025.07.14.)

- 배터리社は 재무부 규정 및 가이드스를 통해 우회, 규제 회피 방지 목적으로 실질 통제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필요

<표2-3> 실질 통제권 참고 기준

분류	설명
생산량·시기 결정권	납세자가 생산하는 적격부품의 수량 또는 생산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생산물 구매·사용 주체 결정권	납세자가 생산한 적격부품의 구매자 또는 사용자 선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데이터·현장 접근 제한권	생산·저장과 관련된 핵심 데이터 또는 생산 현장(또는 일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설비 독점 관리·운영권	납세자가 적격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장이나 설비를 독점적으로 유지·보수·운영할 수 있는 권한

※자료 : 대규모 감세법 §70512(c)(51)(B)(ii)(II) 중 배터리생산 관련 발췌

- (PFE의 실질적 지원) PFE가 제공한 부품·설비·서비스가 일정 비율^{주17)} 이상 포함된 배터리 부품은 PFE의 실질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제외

* 주17) PFE 허용 비중: '26년 40%, '27년 35%, '28년 30%, '29년 20%, '30년 15%

- 단, 배터리 부품과 사용된 핵심 광물에 FEOC가 단 1%라도 포함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공급망 봉쇄형 규제였던 30D의 FEOC 요건과 달리,
- OBBBA는 PFE 요건은 PFE의 개입이 일정 비율 이내라면 사용을 허용하여 단계적 감축을 유도하는 구조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30D의 FEOC 요건보다 완화
- 셀·모듈·소재(양·음극재, 전해질 등)는 PFE 비율 기준 충족 필요^{주18)}
- * 주18) '금지 외국 법인(PFE)의 실질적 지원' 기준은 '적격 배터리 부품'(① 전극 활성 물질, ② 배터리 셀, ③ 배터리 모듈)에 적용되며, 전극 활성 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재(양·음극재, 전해질 등) 단계에도 적용

<표2-4> 공급망 강화 요건

공급망 내 금지되는 개입	
① 특정 외국기관(Specified Foreign Entity, SFE) - 제재 리스트 기업	
2021 국방수권법(NDAA) §9901(6)(A)(B)(D)(E)	중국 군산복합체, 화웨이·SMIC 등 美 정부가 지정한 우려 외국 기업
2021 국방수권법(NDAA) §1260H	중국 인민군 관련 기업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FLPA) §2(d)(2)(B)	신장자치구 내에서 강제노동으로 채굴·생산·제조하는 기업 · 시설 명단, 소수민족을 강제 동원·수송·수용하는데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단체 명단 등
2024 국방수권법(NDAA) §154(b)	반도체·AI 특수 제재 기업
외국통제기관(FCE)	해외우려국가(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의 정부·기관·국적자 또는 이들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거나 설립·통제한 기업 및 그 자회사
② 외국 영향 기관(Foreign Influenced Entity, FIE) - 실질 통제 기업	
지분·채무기준	SFE 직간접적 인사권 보유
	단일 SFE 지분 $\geq 25\%$
	복수 SFE 합계 지분 $\geq 40\%$
	SFE가 보유한 부채 $\geq 15\%$
통제권 기준	지난 과세 연도에 PFE와 계약/라이선스 관계로 PFE가 ① 시설·저장설비 또는 ② 핵심광물·적격부품 생산에 ‘실질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
③ 금지 외국 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에 실질적인 지원	
	PFE가 제공·지원한 어떤 부품·설비·서비스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PFE 허용 비율: '26년 40%, '27년 35%, '28년 30%, '29년 20%, '30년 15% * non-PFE 비율: '26년 60%, '27년 65%, '28년 70%, '29년 80%, '30년 85%

※자료 : 대규모 감세법 §70514(c)(1), §7701(a)(51),(52) 참고

- **(반사이익)** 한국 배터리 3社は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 기대
-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배터리 시장 내에서 4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중국 (14%), 일본(30%)을 앞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미국은 글로벌 배터리 수요의 약 15%(133GWh)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으로 한국 기업은 높은 미국 시장 점유율 확보로 배터리 시장 내 중요한 위치 선점

- 미국 내 총 586GWh 생산 목표로 북미 배터리 공급에 중추적 역할 수행²³⁾중이며, '24년 기준 배터리 3사는 총 1조 8,000억 원 규모의 45X 보조금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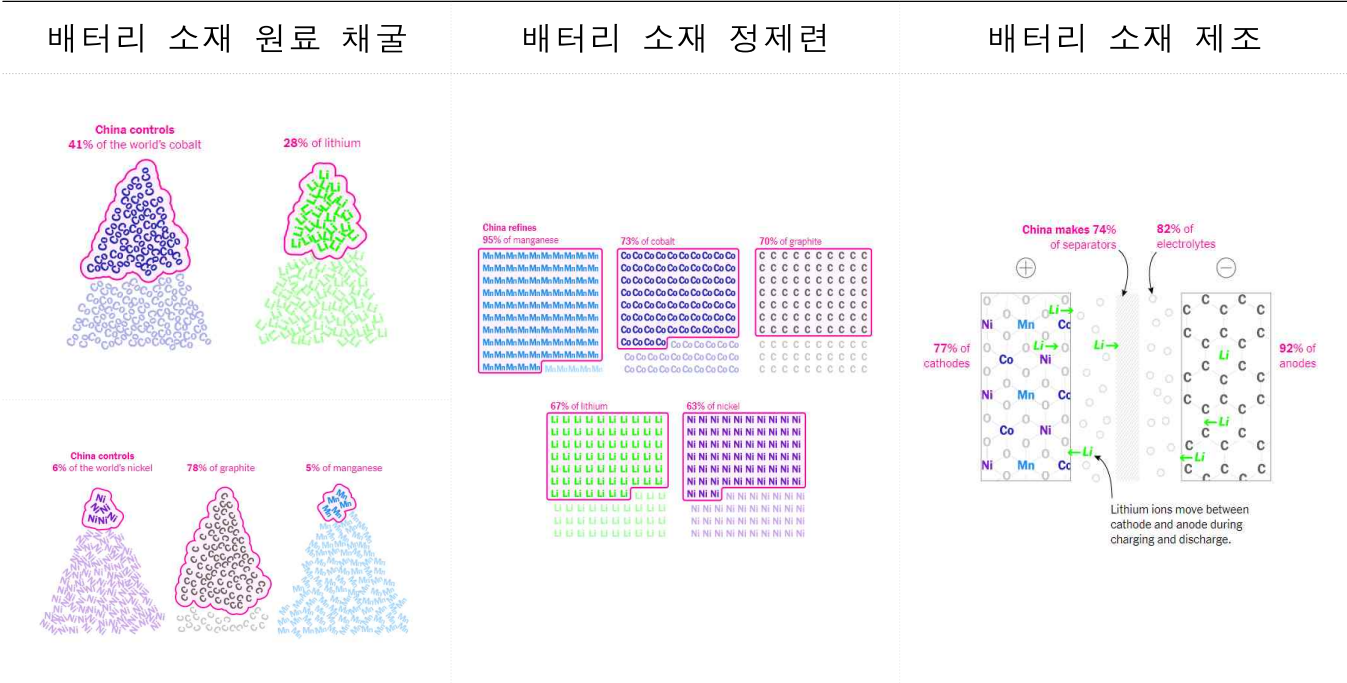
<표2-5> 국내 전지사, 배터리 시장 점유율(2024년 기준)>

	글로벌 시장	북미시장	유럽시장	중국시장
수요량 (비중)	894GWh	133GWh(14.9%)	168GWh(18.8%)	535GWh(59.8%)
한국	18.5%	48%	46%	1.8%
중국	77.6%	14%	51%	97.7%
일본	3.9%	30%	3%	0.5%

※자료 : 한국배터리산업협회(2025)

- 공급망 내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요건(PFE 요건)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14%)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단, 세액공제요건 충족을 위해 제품의 Non-PFE 비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배터리 소재·셀·모듈 공급망에 대한 중국 의존도 단계적 축소 필요
-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중국 의존도('23년 기준)는 원료 채굴 5%~78%, 정·제련 63%~95%, 배터리 소재 제조 74%~92%

<그림2-1>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중국 의존도



※자료 : New York Times (2023)

23)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5/24/2ZFXTBTAZFJZGIR644XK2KDNA/> (최종 접속일: 2025.06.19.)

-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음극재는 93.5%, 전해액은 85%, 분리막은 87.4%가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글로벌 소재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의존

<표2-6> 배터리 소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2023년 기준)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한국	2.4%	7.8%	2.9%
중국	93.5%	85%	87.4%
일본	4.1%	7.2%	9.7%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국회 이차전지 포럼 발표 자료 중 발췌

- 배터리 소재의 중국 제외 대체 공급처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에 한정

<표2-7> 배터리 소재 업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2023년 기준)

순위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기업명(국가)	생산량(점유율)	기업명(국가)	생산량(점유율)	기업명(국가)	생산량(점유율)
1	BTR(中)	394천톤(20.7%)	Tinci Materials(中)	400천톤(29.3%)	Shanghai Energy(中)	5,300(24.1%)
2	ShanShan(中)	291천톤(15.3%)	Capchem(中)	150천톤(11%)	Senior(中)	2,500(11.4%)
3	Zhichen(中)	175천톤(9.2%)	Zhangjiagang Guotai(中)	88천톤(6.4%)	Sinoma Science & Technology (中)	1,600(7.3%)
4	Kaijin(中)	145천톤(7.6%)	Mitsubishi Chemical(日)	63천톤(4.6%)	아사히카세히(日)	895(4.1%)
5	XFH(中)	80천톤(4.2%)	엔켐(韓)	63천톤(4.6%)	SKIET(韓)	648(2.9%)
7	포스코퓨처엠(韓)	45천톤(2.4%)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국회 이차전지 포럼 발표 자료 중 발췌

III. 정책과제

1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 조정 및 지원

- **(현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발표('25.3월)
 -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AI·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대출·보증을 종합 지원할 예정
 -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서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기금 운용 방안 마련 등 논의('25.6월)²⁴⁾
- **(문제점)** 기금 근거 규정인 산업은행법 개정과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활용 시점이 지연될 우려
- **(요청사항)**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조속한 조성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 및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신속 처리, 산업은행 내 전담조직 설치

24) https://www.news1.com/view/NISX20250624_0003226009 (최종 접속일: 2025.07.10.)

②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투자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 **(현황)**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및 사업화 시설투자의 15%, 연구·인력 개발비의 30%를 법인세 감면 방식으로 세액공제^{주19)}

* 주19)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0조

□ **(문제점)** 조특법 제24·10조에 따른 세액공제는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영업손실 시 세제 혜택 제한

○ 국가전략기술 R&D 및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도입논의를 통해 세제 혜택의 현실화 필요

○ 현재 직접 환급제도 도입논의는 조특법 제24조에 한정되어 있으나, 제10조 국가 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도 논의 확대 필요

〈국회 계류의안〉

의안명	대표발의 의원	직접 환급제도 관련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1. 22.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 제24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 -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 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연도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10. 28. 발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제24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 금액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

– 배터리 3사는 한국을 연구개발(R&D)^{주20)} 거점으로 두고, 전체 생산량의 92.4%를 해외 공장에서 제조 중으로²⁵⁾ 국내 세제 혜택 체감 효과 제한

* 주20) 배터리 3사 2024년 연구개발(R&D) 투자비용 약 2조 8,660억원²⁶⁾

□ **(개선방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한시적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로 유동성 확보 및 투자 선순환 구조 지원

25)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3084&siteId=1> (최종 접속일: 2025.07.10.)

26) 배터리3사 2024년 사업보고서 연구개발비용 참고

③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및 직접환급 적용

- **(현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내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규정 부재
- **(문제점)** 미국은 배터리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세제지원이 없어 제도적 불균형 발생
-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일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❶법인세 공제 방식, ❷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수혜 불가 등 한계 존재

〈국회 계류의안〉

의안명	대표발의 의원	생산촉진 세제 관련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6. 12.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으로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택1 - 일정 요건 만족시 미공제금액의 50%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3. 13.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으로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택1 - 미공제금액 환급 또는 제3자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3. 7.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으로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택1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5. 04. 17. 발의)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	생산보조금의 지급,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등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사항 등 규정

- **(개선방안)**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한시적으로 도입
- 생산 세액공제에도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적용하여, 영업손실 기업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생산 지속 여건 마련
- 투자 세액공제와 생산 세액공제를 선택 적용이 아닌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투자와 생산이 동시 활성화 필요

4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

- **(현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연 10조 원 규모로 운용 중 (공급망안정화법 제6장)
 -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주21)}를 지정하여 저리 대출 등의 정책지원
* 주21) '25.4월 기준 공급망선도사업자 총 130개
- **(문제점)**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現 5년)이 제한되어 있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확보방식이 기금채권 발행에 한정되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현행 5년 조성기간은 중장기 공급망 불안정 대응에 비효율적이며, 기금 채권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제약으로 작용
 -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금채권 발행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출자·고위험 투자·금리보전 등 유연한 수단 운용에 제약
- **(개선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 연장,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지원·재원확보의 불확실성 해소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규관 외. (2025).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일 협력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4-09.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4-20호.

최재희. (2024). 트럼프 2기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포커스 제07-36호.

[해외문헌]

Daniel Elizalde, Zahava Urecki, & Xan Fishman. (2025). Unpacking the FEOC provisions in the House Ways and Means Reconciliation Bill. Bipartisan Policy Center.

Elaine Buckberg, & Casssandra Cole. (2025). Trump EV Policy Overhaul: What Will Happen to EV Adoption, Emissions, and the Fiscal Balance. Policy Brief. The Salata Institute For Climate and Sustainability.

Gracelin Baskaran & Meredith Schwartz. (2025). Impacts of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on the Mining Sector.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H.R.1 – One Big Beautiful Bill Act

Hunt Allocott, Reigner Kane, Maximilian S. Maydanchik, Joseph S. Shapiro, Felix Tintelnot. (2024) The Effects of “Buy American”: Electric Vehicles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33032.

Steven Lorch, Jonathan Macke, Omar Samji, Irina Tsveklova, Nathan Bunch, and Madeline Joerg. (2025) House Passes the One, Big, Beautiful Bil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for the Energy Transition. Weil, Gotshal & Manges LLP.

The White House. 2025. Unleashing American Energy. *Executive Order*.

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Ways & Means. (2025). The One, Big, Beautiful Bill.